

# “개헌, 현실성있게 제한적 검토해야”

## ■李大統領 회견 요약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개헌의 큰 틀을 제시하고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거듭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제한적 개헌=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 문제와 관련, “영토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에다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한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의 범위를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한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여야 간의 찬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개헌 범위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의 합의 도출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당이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적절한 계기만 주

## 영토·이념문제까지 개헌 논의 들어가면 힘들것 소+중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검토 필요

어지면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거구제 개편=이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지금 같은 선거구제로는 동서 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 한 지역에 가면 어느 쪽, 또 다른 지역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은 소선거구제, 인구 규모가 큰 곳은 중선거구제로 이원화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로, 일원이 과거 한때 채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해

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선거구제를 희망하는 한편, 지역구 수가 많은 영남 기반의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비해 의석확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제도 등을 선호해 여야 간 합의는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역 개편=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100년 전 농경 시대에 이뤄진 행정구역은 첨단시대의 경제여건상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자발적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여야 간의 이견이 덜할 전망이다. 이미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는 상태인데다 여야가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논의의 질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힐러리, 북 억류 여기자 위로 오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3일 낮(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한식당 우래옥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로라 링 기자 가족 및 국무부 직원 등과 함께 식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MB “일왕, 내년 방한 희망...한-일간 거리 좁히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내년 일본 천황의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 통신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어질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 출범부터 경제 난제 ‘침침산중’

## 日 하토야마號 첫 과제는 ‘실업·재정 적자’ 해법 될 듯

16일 출범하는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경제다. 아소 다로 자민당 정권은 100조엔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경기 부양에 나서 간신히 성장 추락세를 저지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는 요원할 실정이다.

따라서 하토야마 정부는 암울한 경제를 추스르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하토야마 정부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은 고을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분배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은 성장과 일자리를 위축시켜 ‘하토야마 불황’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토야마 신정부는 자민당 정권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재정상태, 쪼그라든 제조업 생산을 물려받았다.

경기의 정점이었던 지난 2007년 10~12월기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563조엔이었지만 올해 1~3월기엔 520조엔으로 43조엔(7.6%)이 줄었다. 4~6월기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했다고 하지만 GDP 감소분의 7% 정도를 회복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토야마 정부는 207조엔(올해 기준)의 연간 예산 가운데 공공사업 중단과 행정예산 감축, 각종 기금 등에서 재원을 찾아 국민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에만 7조1천억엔, 2011년부터는 16조8천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사업 감축과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9조1천억엔을 조달하는 등 국제발행이나 세금인상 없이 확보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사상 최대 의석을 얻은 하토야마 정부는 법 국민적인 축복과 기대 속에 출범하지만 막두부터 침침산중의 경제적 난제에 봉착할 전망이다.

## “지방 이전 국비지원 2천억원중 광주 몫 17억뿐”

### 민주당 김재균 의원

수도권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광주를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지방이전보조금 국비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부터 올 8월말까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돼 지원된 국비 2천44억원 가운데 17억원이 광주 몫이었다.

이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충남 36.3%(743억원), 충북 22.9%(469억원), 대전 2.6%(52억원) 등에 비해 극도로 미미한 수치다.



전남의 경우 43억원(2.1%), 강원 319억원(15.6%), 전북 257억원(12.6%), 대구 26억원(1.3%), 경북 5억원(0.2%), 경남 33억원(1.6%), 부산 3억원(0.1%), 제주 79억원(3.9%)의 이전 지원금을 받았다.

또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에서도 광주시는 총 투자건 수 1천182건 가운데 13건에 불과했고, 투자유치 금액 면에서도 전체 67억9천300만 불 가운데 500만불에 그쳤다.

## “경찰 정보팀서도 영남 출신 약진”

### 민주당 최인기 의원

경찰청 정보팀에서도 영남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호남출신 인사들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결산 심사회에서 “경찰청 정보팀 경위급 이상 경찰관 116명 중 영남 출신은 참여정부(2006년 기준) 때는 35명이었으나 이날 현재 45명으로 10명이 늘었다”며 “반면 호남 출신은 30명에서 20명으로 10명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경찰청 정보주사는 총 투자건 수 1천182건 가운데 13건에 불과했고, 투자유치 금액 면에서도 전체 67억9천300만 불 가운데 500만불에 그쳤다.”



줄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MB정부 출범 이후 전 정보팀에서 정보

를 담당했던 특정지역 사람들을 몰아내고 특정지역 사람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인사가 단행됐다”며 “정보경찰을 정권안보의 최우선으로 활용하려는 의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경찰 정보팀은 정치를 포함한 치안정보 및 정책 정보, 신원조사 및 기록을 수집·작성 및 배포, 보고하는 등 모든 지역의 가장 토대가 되는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정보주사는 총 투자건 수 1천182건 가운데 13건에 불과했고, 투자유치 금액 면에서도 전체 67억9천300만 불 가운데 500만불에 그쳤다.”

## 신종플루 새 치료제 개발

### 日 연구팀 “타미플루보다 효과 빠라”

타미플루 이상의 약효를 지닌 새로운 신종플루 치료제 개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종플루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주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시게루 고노 박사를 주축으로 한 연구팀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미생물학 콘퍼런스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 치료제 ‘페라미비르(Peramivir)’ 정맥주사를 1번 접종받으면 78~81시간 내에 신종플루 증상이 사라진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아시아 지역에서 1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닷새 동안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하거나

300-600mg의 페라미비르 정맥주사를 1회 투입하는 방법으로 효능을 비교·분석했다.

특히 타미플루 공급이 부족하고 타미플루에 대한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나오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신종플루 증상이 처음 나타나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타인에게 신종플루를 옮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이는 열이 내리고 하루 정도는 타인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신종플루 행동지침과 배치된다.

**농기계는 구입처 잘 선택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신종농기계, 소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이앙기, 파종기, 관수기, 방제기, 기타농기계

062-363-4800

신성아산권

**아이엘리시아**

독역 투리미와 비로

063-671-1199